


정해윤 Jung Haiyun (b.1972)

 @badahaiyun

- 학 력 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개 인 전 2024 본성의 여정 (노블레스컬렉션, 서울)
2020 Memories (쉐라톤 서울 팔레스, 서울)
2017 Dynamics of Relaiion (마이클슈츠 갤러리, 독일 베를린)
2016 PLAN B (가나아트갤러리전관, 서울)
2012 TIME TRACK (가나아트갤러리전관, 서울)
2011 Relation (FNart space파이낸셜, 서울)
2009 가나아트갤러리 (서울)
Vessels of role, Do window (갤러리현대, 서울)
2008 Seeing and Hiding (Newdays gallery London, 영국)
- 초대 / 단체전 2024 The Dots II (갤러리나우, 서울)
Elegant Stone (월전이천시립미술관, 이천)
Objet, Object, Objection (미메시스 아트뮤지엄, 파주)
2023 디파인 서울 2023 (화이트스톤갤러리, 서울)
2023 박세리 희망재단 MAUM, 스포츠 문화 융합 월드매치 (부산)
KIAF (화이트스톤 갤러리, 서울)
부분의 합: 회복과 결속 (시슬리 파리본사, 파리, 프랑스)
무릉도원보다 지금 삶이 더 다정하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아트센트럴 (홍콩)
Borderless Universe (갤러리BK, 서울)
Hidden Masterpiece part II (갤러리BK, 서울)
2022 Welcome Friez (오크우드 프리마이어 코엑스센터, Seoul)
아티스트 Way of Seeing (분더샷, Seoul)
Borderless Universe (galleryBK, Seoul)
2020 Believing is seeing (Ganaart gallery, Seoul)
TEFAF (Masstricht, 네덜란드)
2019 역단의 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상하이 ART021 (상하이)
artmonte-carlo (모나코)
Korean's sprit (Artvera's 갤러리, 제네바)
ArtGeneve 2019 (제네바)
TEFAF (Masstricht, 네덜란드)
2018 Asia Now (Paris, 프랑스)
ArtGeneve 2018 (제네바)
TEFAF (Maastricht, 네덜란드)
- 그 외 다수
- 레 지 던 시 2019 씨떼 국제공동체 레지던시 (파리)
2011 Ginestrelle Artist 레지던시 (아씨씨, 이태리)
2010 씨떼 국제공동체 레지던시 (파리, 프랑스)
2009 버몬트스튜디오 (버몬트, 미국)
2008 장흥아뜰리에 (장흥, 한국)
2008 아트오마이 국제레지던시 (뉴욕, 미국)

[Artist's Note]

Plan B (실기동작품)

우리는 한번 주어진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선택은 한가지일수도 수백가지 일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결과를 좌우하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수도 있다. 처음엔 Plan A를 계획하지만 Plan B로 가야할수도 있다. Plan B의 plan B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Plan B의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다리타기 게임처럼 정해진 길은 삶에 없다. 다만 각자 어떤선택을 하고 어떤과정을 밟는지에 따라 각자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진다. 작품속의 실기동에서 빠져나온 실들은 인생의 과정에있어 수없이 많은 선택할수 있는 길을 의미한다. 현재 안좋은 선택을 했다고 손 치더라도 또 어떤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극복할 또다른 길이 반듯이 있기도하다.

인생에는 한가지 방법만이 있는것만은 아니며 또 항상 첫번째 선택한 길이 반드시 옳은 선택이 아닐수도 있다. 만약 처음의 선택한 길이 옳다고 생각이들면 그길을 가는 방법은 또한 정해져있는게 아니다.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 각자 같은 목적지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다를수 있는것이다.

또 Plan B, Plan C 대안의길은 인간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수도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수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희망의 끈은 어디든 존재하며 스스로의 삶의 선택의 끈을 놓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작품이다.